외대학보

종강호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63호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발행인 김인철 /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 편집장 김현익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기획] 》 3면
우리학교 총학생회 공약점검

[사회] 》 4면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논란

[사회] 》 5면
글로벌 공급망 대란

[인물] 》 7면
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우리학교를 이끌 제12대 총장, 그 주인공은?

지난달 29일부터 제12대 총장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총 6명의 후보를 만나 공약집에선 알 수 없는 △제시한 공약의 현실성△구체적인 실천 방안△공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등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공통 질문과 후보자별 질문으로 나눠 각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0, 11, 12면에서 계속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정나윤 기자 02myun@hufs.ac.kr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대학일자리 플러스 본부, '진로 취업 특강 및 1:1 커리어 컨설팅' 개최해

지난 10월 28일 외국계 글로벌 기업 취업 전략 특강이 진행됐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진로취업지원센터는 바이오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코리아(Astrazeneca Korea)와 협업했다.

이번 행사에서 도원웅 아스트라제네카 코리아(Astrazeneca Korea) 상무(이하 도 상무)는 △보스톤 컨설팅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아스트라제네카 코리아(Astrazeneca Korea)△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의 3가지 핵심 원칙을 예로 들며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후 도 상무는 이번 특강과 컨설팅의 강의료 전액을 우리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오세홍 진로취업센터장은 "앞으로 산학 협력의 범위가 연구 · 개발뿐 아니라 취업과 진로 영역으로 더욱 확장될 수 있는 좋은 사례다"며 "앞으로 기업과의 긴밀하고 의미 깊은 산합협력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연을 들은 김준(동유럽 · 폴란드 21) 씨는 "기존 형식과 달리 이 컨설팅은 1:1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며 목표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취업 준비 중 진로 설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들에게 특강을 들을 것을 추천했다.

한편 이번 해 우리학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운영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5년간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매칭 프로그램 강화△대외기관 협력 확대△전문적인 학생상담 연계체계 운영△지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취업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시행해 대학생 및 지역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우리학교 다문화교육원 '제9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개최해

지난달 6일 우리학교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9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가 개최됐다. 우리학교 다문화교육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LG연암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선발된 52명의 다문화 학생은 제시된 주제에 대해 △러시아어△중국어△한국어 등 부모의 모국어로 발표를 진행했다. 참가 학생에겐 대회 이후에도 이중언어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리더십 캠프△해외연수 프로그램△1:1 화상 상담 등 후속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축사에서 "참가자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학교는 참가자의 이중언어 능력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박종대 우리학교 다문화교육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편견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기 보영여자고등학교의 블레싱 씨는 외국인 주민을 도운 경험과 함께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로계획을 한국어와 토고어로 발표했다. 블레싱 씨는 수상 소감으로 "오늘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함께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2015년 △교육부△우리학교△KDB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증권)의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에서부터 시작돼 현재 9회차를 맞이했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함께한 우리학교의 2년

지난달부터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며 우리학교도 40명 이하 대면수업 및 행사를 재개했다. 이번 해 8월부터 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및 접종이 시작됐다. 우리학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를 고려해 이번 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난해 1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코로나19 비대위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 비대위장을 맡고 △보건실△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총괄지원팀 등으로 이뤄졌다. 비대위에선 △비대면 수업 실시△학사일정 조정△코로나19 모니터링 신속대응센터 운영 등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지난해 1학기부터 비대면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윤혜주(인문 · 언어인지 19) 씨는 "수업 방식이 변경돼 혼란스러웠지만 적응하니 편해졌다"며 "비대면 수업의 성적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꾼 점은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와 이번 해 입학한 재학생 사이에선 대학 생활에 제약이 많아 아쉬웠단 의견이다. 이번 해 입학한 배유빈(경상 · GBT 21) 씨는 "수업이나 과 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대학 생활을 기대만큼 즐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내 방역을 담당하는 비대위 교직원은 확진자 확인 단계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교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우리학교 보건실과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에서 확진자의 △방문공간△수강한 수업△이동 동선△접촉자 등을 확인한다. 김태문 우리학교 총괄지원팀 팀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재학생 중 동선 확인을 위해 필요한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관련 구성원에게 코로나19 검사 안내 및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방역을 담당하는 최고원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대리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 내국인 학생보다 연락이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 전화번호가 없거나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소재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비대위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학일상회복위원회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대학일상회복위원회는 우리학교 각 건물의 △강의실△공용화장실△식당을 하루에 한 번씩 소독하고 모든 강의실과 건물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양건안(서양어 · 프랑스어 19) 씨는 "비대면 수업을 기약 없이 지속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면 수업을 시작한 만큼 방심하지 않고 방역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한국외대 · 경희대 · 서울시립대, 동대문구 3대학 축제 '트로이카' 개최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우리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2021 트로이카(TROICA)' 축제를 진행했다. 트로이카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3개 대학인△우리학교△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가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2021 트로이카'는 지난 2019년 열린 제1회 정기교류전 '삼동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대학 문화 행사가 활발히 개최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화합과 교류의 장이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축제 이름을 삼동제에서 트로이카로 바꿨다. 다수의 프로그램이 영상으로 기획됐고 우리학교 중앙동아리가 축제의 중심이 됐다는 점에서 이전 대면 축제와 차별점이 있었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공연전' △'네고왕' △'미니 트로이카' △'사진전' △'시청 인증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진행된 행사는 미니 트로이카였다. 각 학교마다 소속된 학생이 △속담 이어말하기△인물사진보고 이름 맞추기△초성 게임 등의 미니게임을 하며 행사가 진행됐고 유튜브로 송출됐다. 두 번째로 열린 행사는 네고왕이다. 우리학교의 경우 '베브릿지(Be: Bridge)'를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진행자들은 학내에서 가게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실제 가게로 장소를 옮겨 인터뷰를 진행했다. 진행자는 가게 안에서 △가격 네고△음료 시식 후 명칭 맞추기△창업을 꿈꾸는 학우에게 하고 싶은 말 인터뷰 등의 활동을 했다.

▲트로이카 사진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간은△응원단△춤△힙합 부문으로 구성된 공연전이 이어졌다. 22일과 23일에 열린 힙합과 춤 부문에선 우리학교의 'HUFS DOVY'가 참여했다. 24일에 열린 응원단의 공연은 우리학교 '아이기스'가 참가했다. 공연전에 참가한 '홉스도비(HUFS DOVY)'에 속한 정수민(경영 · 경영 21) 씨는 "현 상황에 맞는 축제 방식으로 축제 방식을 적절히 조정한 것 같다"며 트로이카 기획단의 유연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모든 학우가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비대면 축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축제의 막바지엔 트로이카 기획단이 △오뚜기△열라면△종근당과 협업한 오프라인 부대행사와 사진전이 열렸다. 트로이카는 오뚜기와 '최강의 주먹을 가려라'라는 학생 참여형 행사를 진행했으며 종근당과는 오프라인 사진전을 열었다. '열라면'과는 SNS 활동을 이용한 시청 인증 대행사를 진행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8일엔 각 학교의 유명인사의 축전 인사가 이어졌다.

조혜민(아시아 · 마인어 18) 우리학교 동아리연합회장이자 트로이카 기획단장(이하 조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동아리 홍보 문제가 심각했고 대부분의 동아리가 비대면 활동 중이다"며 동아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축제가 기획됐음을 밝혔다. 한편 기존에 약속돼 있던 동대문구청의 예산 지원이 취소돼 어려움이 있었음을 전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학생의 축제 참여가 확대되지 못한 점도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이 증가함에 따라 대면 행사의 비율이 확대된 새로운 축제를 기대한다"며 다음 트로이카 축제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다. 김효정(중국 · 중외통 21) 씨는 "우리학교의 여러 중앙동아리를 만날 수 있는 대형 축제인 만큼 대면으로 전환될 경우 학생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향후 축제가 대면으로 진행돼 학우에게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한국환경연구원(KEI) 공동 학술회의 개최해

지난달 12일 우리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은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함께 국제학술회의를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접경과 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2부로 구성된 회의는 각각 '접경, 환경, 그리고 국제협력'과 '탄소중립과 남북한 협력' 순서로 시행됐다. 1부에선 △러시아△미국△일본△중국의 전문가가 각국의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과 국제협력에 관한 발표를 진행했다. 각국의 전문가는 해당 국가의 △개발추세와 동향△이산화탄소 배출량 현황△저탄소 경제 정책△저탄소 전환과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우리나라 전문가는 발표의 내용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 나갔다. 토론 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가 협력을 해 친환경적인 행보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2부에선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장△김재한 국제문제연구소 소장△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국내 전문가가 탄소중립과 남북한 협력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참여자들은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와 북한의 환경을 고려해 정교한 국제사회 협력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남북협력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윤제용 한국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회의가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해 남북 환경협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학술회의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강준영 우리학교 HK+ 국가전략사업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환경 문제와 더불어 남 · 북한의 관계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해 모였단 것이 뜻 깊다"고 밝혔다. 강서현(서양어 · 포르투갈어 21) 씨는 "환경문제에 직면해 국제사회 속 전문가가 모여 방안을 논의했단 점이 인상 깊었다"며 사회 · 환경적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방안을 탐구한 이번 학술회의가 뜻 깊었음을 강조했다.

차승연 기자 03seungyeon@hufs.ac.kr

우리학교 국제교류처 '2021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사업' 선정돼

우리학교 국제교류처가 '2021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사업(이하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달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1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사업 신규 사업단' 선정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우리나라△일본△중국의 대학 간 상호이해 증진 및 대학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학생 교류 사업이다. 사업단 선정 대학엔 연평균 약 1억 2천만 원씩 총 5년간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

이번 해 9월 △우리나라△일본△중국은 나라별 심사를 진행한 후 10월 말까지 심사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번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선 △우리나라△일본△중국 외 10개의 아세안(ASEAN) 국가 대학이 추가로 참여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했다. 그 결과 기존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 12개 사업단과 기타 8개 사업단의 총 20개 신규 사업단을 선정했다.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은 '아시아에서의 포용적 마인드 육성을 위한 국제 협력 인적 자원 개발'로 우리학교와 △인도네시아교육대학교(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히로시마대학교(Hiroshima University)△장춘대학교(Changchun University)△카셋삿대학교(Kasetsart University)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이에 참여한 대학 간의 향후 공동학위 과정 개설을 목표로 한다. 여기엔 △단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코일(COIL)형 협력 교육 프로그램△포용적 아시아를 주제로 한 하계대학△학기 교류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우리학교가 이번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박주영(아시아 · 태국 21) 씨는 "해외 대학과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 같다"며 "사업에서 진행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유나 우리학교 국제교류처장(이하 이 처장)은 "협력 대학과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보강과 교육 기반 시설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우리학교가 이번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로 다양성의 이해를 돕는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꼽았다. 이어 "재학생에게 △소수민족△장애학생 지원△종교 등 다양성을 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이 같은 기획이 각 나라 교육부의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수연 기자 02shinsoo@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전기석사학위과정신입생모집

1.2022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1.10.11(월) ~ 10.25(월)	2021.11.15(월) ~ 11.29(월)
고사장 발표	2021.11.03(수) 15:00	2021.12.08(수) 15:00
면접전형	2021.11.06(토) 10:00 예정	2021.12.11(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1.11.18(목) 15:00	2021.12.23(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1.11.22(월) ~ 11.26(금)	2021.12.27(월) ~ 12.31(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 신설(논문 · 졸업연구보고서 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및 모집요강 참조

9.한국외국어대학교TESOL대학원교학과
TEL.02-2173-3521~2FAX.02-2173-358 (우)02450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양캠퍼스 총학생회,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제55대 총학생회 '외대에게'(이하 설캠 총학)와 글로벌캠퍼스 제42대 총학 'ON(온)'(이하 글캠 총학)은 한 해 동안 학생을 대변하며 목소리를 전하는데 힘썼다. 임기가 막바지로 달려가는 만큼 이들이 내걸었던 공약과 이행률을 살펴보며 양캠퍼스(이하 양캠) 총학의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총학에게 남겨진 해결점은 무엇일지 살펴보자.

◆설캠 총학의 이행 상황은?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에서 이주원(영어 · ELLT 18) 씨(이하 이 회장)가 설캠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설캠 총학은 △대학생 자치권 보장△등록금 · 교육권 운동하는 학생△총장 후보 역량 전격 평가 등 학내 거버넌스 민주적 개혁을 위한 3대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앞세웠다. 또한 △교육△자치△소통△인권△생활복지△문화 6개 분야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자세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자치	이행 중	미 이행
[교육] △수강신청제도 전면 개편(취소-시간 차 수강신청제)△학사제도협의회 정례화 **[자치]** △학생회 활동 증명서 발급△문화사업 연합 세미나 **[소통]** △총학생회 소통 방송△집행부 내부 통번역 전담 기구 설치-통번역전담 TF팀△홈페이지 운영 방식 개편 **[인권]** △한국외대 인권주간 '가시화' 프로젝트('인권을 차차찾!')△학교 근처 인권 책방/도서관 제휴 및 관련 업계 종사자 인터뷰 **[생활복지]** △자취방 계약 시즌 법률 상담 지원(글로벌법률상담소 리걸클리닉센터) **[문화]** △퀸쿠아트리아 하이브리드 플러스 축제△청춘비전토크쇼△학교 굿즈 디자인 공모 및 창업전△외국인 학우와 함께하는 국제 문화 교류전(축제 중 '대한외국인' 프로그램)	**[교육]** △학생 수요 기반 강의 확충 요구△성적평가방식 공론장 형성△유연학기제/집중이수제 모니터링△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요구△교환학생 학점 인정 절차 간소화 **[자치]** △비대면 학생자치활동 지원△지하 자치공간 재정비 요구△자치공간운영 관련 학생 대표 간담회 **[소통]** △정기 소식지 발행△기층단위 학생회 회의 방문 **[인권]** △풀뿌리 인권 연구학회 지원 사업△반성폭력 자치규약 재정비△인권, 여성학 등 교양 과목 개설 요구△온라인 교육 봉사 연결△학내 소수자 단체와의 연대△제도 속 우리 인권 돌아보기 **[생활복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특강 개설 요구△학내 기숙사 협의체 발족△생필품 공동구매 사업 추진	**[생활복지]** △남/여학생 휴게실 리모델링 **[문화]** △대학과 정치를 잇다

▲설캠 총학 이행 상태에 따른 공약 목록

처음으로 학생이 총장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총장 선거 대응 TF팀 구성△총장 후보 선거 입후보자 공약집 배포△후보자 공약 분석 카드뉴스 제작 등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글캠 총학과 같이 '외대 119 전체학생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교육 부문에선 '취소-시간 차 수강 신청제'를 도입했다. 기존 수강신청방식의 경우 신청을 취소하면 바로 여석이 생겨 다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의를 매매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취소로 발생한 여석에 시간 차를 두는 방식을 도입했다.

비대면 수업방식이 이어지면서 학생이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퀸쿠아트리아 하이브리드 플러스' 축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혼합된 상태로 진행됐다. △대한외국인△부퀴즈온더외대△외대갓탤런트△이문동 요리조리 등 지난해에 비해 많은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서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학생의 인터뷰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며 이야기를 담았다. 학교 굿즈 디자인 공모전도 진행됐다. 학생의 공모를 받아 1차 선정을 거친 후 학생투표로 최종 디자인을 선정해 굿즈로 판매했다. 허유진(아시아 · 마인어 21) 씨는 "학교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가 인상 깊었다"며 "학생이 직접 제작한 학교 굿즈를 사용하며 애교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 부문에선 △본인등판△비건앤비워△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인권포럼 등의 행사를 포함해 '인권을 차차찾!'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더불어 '풀뿌리 인권 연구학회 지원 사업'을 펼치며 △기술△문화△사회△제도와 인권을 결합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학생을 위한 생활복지 부문도 확대됐다.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을 위해 글로벌법률상담소 리걸클리닉센터를 통해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소통을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설캠 총학은 지속적인 소통 방송을 통해 공약 이행 현황을 알려왔다. SNS를 활용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집행부 내부에 통번역 전담 TF팀을 개설해 외국인 학생도 학교의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영어△일본어△중국어 3개 언어로 번역을 진행해 영어와 일본어의 경우 총학생회칙의 약 60% 이상, 중국어의 경우 96%가 번역됐다.

이행되지 못한 공약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학과 정치를 잇다' 프로그램은 학생이 20대 유권자로서 정치에 목소리를 내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총학은 현재 총장선거에 전력을 쏟고 있어 모든 선거가 끝난 후 12월부터 기획될 예정이라 밝혔다. 글캠과 함께 대선 후보자들을 초청한 토크쇼 형태를 고려 중이며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협업하거나 서울 · 경기권 대학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 · 여학생 휴게실 리모델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총학에서 정확한 방역 조치와 확진자 현황 공지가 필요하단 의견도 존재한다. 위드코로나(With Corona) 전환 이후 우리학교는 부분 대면 수업방식을 택해 학교를 찾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늘어났다. 확진자 발생 현황과 소독 여부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보다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과 학생의 불안감이 높아졌다. 김용재(일본 · 일언문 17) 씨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학에선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각한 상황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학우의 안전한 학교생활 확보를 위한 총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함께 달려온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외대를 사랑하는 만큼 끝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공약 이행을 위한 계속된 노력을 내비쳤다. 강 부회장도 "학생 사회의 대응에 주력을 다했던 한 해였다"며 "끝까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글캠 총학의 공약 이행 상황은?

글캠 총학은 민주주의 실현과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단 포부와 함께 김온유(통번역 · 영어 15) 씨가 글캠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학생 중심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소통△학교△연대△인권△복지△교육△균형 부분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이행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이행 완료	이행 중	미 이행
[제도] △장바구니 담은 인원 수 표시△집중학기제 **[연대]** △캠퍼스 간 공동 회의 개최 **[인권]** △인권연대국 명칭 및 업무 변경△베리어프리 **[복지]** △방학 기간 신기숙사 사용△생협과 복지 공약△면접 시험 준비 지원 **[교육]** △RC영어 개선 **[균형]** △총장선거 준비 TFT구성△총장과의 대화 프로그램 개설	**[제도]** △잔여학점 확인 기능 도입△수강신청 내역 상시 삭제 기능△튜터링제도 모집 방식 변경 **[소통]** △정책공모전-내가 만드는 외대 **[학교]** △학교 발전 계획 분석 및 대처 **[연대]** △캠퍼스 간 학술대회 개최 **[인권]** △교수신고제△통합인권센터 설립△장애학우 도우미 모집방식 개선 **[복지]** △자동증명발급기 증설△백년관 열람식 좌석 자동 반납기△기숙사 짐보관 서비스△기숙사 식당 열람실화 **[교육]** △온라인 강의 최신화△강의 수요조사 후 개설 및 충원	**[제도]** △미네르바 평가방식 전환 **[소통]** △단과대별 공약 이행률 공시△총학생회 온라인 청원제△함께하는 총학생회 운영-정책평가단 **[학교]** △학교 발전 계획 분석 및 대처 **[균형]** △강의평가내용 교원평가반영△대학본부 불친절 서비스 개선

▲글캠 총학 이행 상태에 따른 공약 목록

지난 9월 30일 기준 글캠 총학의 공약 이행률은 △이행 완료 30.3%△이행 중 48.48%△미이행 21.21%이다. 글캠 총학은 기존 총학에 비해 인권 부문에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실현했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성평등센터와 학생복지센터를 합친 통합인권센터 설립을 진행 중이다. 기존의 성 관련 범죄 피해 전문 상담 및 즉각 대응과 학생 심리 상담에서 범위를 넓혀 소수자를 포함한 학내 전체 인권을 다루겠단 목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제도 측면에선 집중학기제를 도입했다. 집중학기제는 기존 16주 수업을 8주로 단축 이수해 △실습△이론△회화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부문에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 영어가 개선됐다. '우리의 온도'란 주제로 축제를 진행했다. 이번 축제는 △세민전 온 더 블록△이스포츠(E-sport) 대회△전지적 외대 시점 토크쇼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메타버스를 활용한 '캠퍼스 게더타운'을 통해 글캠 지도를 만들어 온라인으로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적 외대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설캠 총학과 마찬가지로 총장선거에 대비한 TF팀을 구성하고 △총장선거 후보자별 공약 정리△단과대별 공약 요구사항 정리△전체 학생 요구 공약 설문 및 정리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하나 된 우리학교를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연대 부문을 따로 발표하며 이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학생총회로 진행된 캠퍼스 간 공동 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캠퍼스 간 학술대회를 진행 중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취했다. 이 밖에도 △대학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식당 · 온카페 운영△자취생을 위한 이사 서비스△면접 · 시험 준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박시현(경상 · GBT 20) 씨는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게 돼 학교생활이 풍부해졌다"며 "다음 해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학생 참여 콘텐츠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이행되지 못한 공약도 존재했다. 당선 당시 총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느낀 부당함을 상쇄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준비했다며 △교수신고제△대학 본부 불친절 서비스 개선△'총장과의 대화' 프로그램 개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대학 본부 불친절 서비스 개선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교수 신고제는 진행 중에 있다. △강의평가내용 교원평가 반영△미네르바 평가방식 전환△총학생회 온라인 청원제 등도 이행되지 못했다. 이다경(통번역 · 스페인 21) 씨는 강의평가내용 교원평가반영에서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의평가내용이 교원평가에 반영된다면 수업 중 느낀 불만을 개선하며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우리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음 총학이 가져가야 할 숙제

각 총학이 만들어가는 고유의 정체성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전 총학을 이어 수행하는 것과 이전의 아쉬움을 보완하며 발전하는 것도 중요한 모습 중 하나다.

이번 양캠 총학에겐 공약 이행 완료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단 지적이 존재했다. 설캠 총학의 경우 자취방 계약 법률 상담 지원에 대한 공약 이행 건을 통해 볼 수 있다. 설캠 총학은 초기 공약집 배부 당시 법률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지속적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행 과정 중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부스 운영이 불가능하며 단기적 상담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글로벌법률상담소를 SNS로 홍보해 접근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공약 내용을 전환했다. 글캠 총학의 경우 베리어프리(Barrier Free)는 우리학교 베리어프리 건물 지도를 제작해 카드뉴스로 SNS에 알린 후 공약 이행 완료로 처리했다. 그러나 베리어프리 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상 이행 내용이 없더라도 사안을 요구했거나 시도했다면 이행 완료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을 위한 직접적 공약이 부족하단 의견도 있었다. 지난 4월 2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된 '설캠 총학 후보자 합동공청회'에서 총학은 고시반 확대 등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공약이 부족하단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이 회장은 방법을 고민해보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시반 사업은 공공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되며 설캠 총학은 △시반 수용 인원 확대△주요 컨설팅△관리 프로그램 설치와 같은 학생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글캠 총학에게도 실질적 공약이 부족하단 지적이 계속됐다. 손예영(경상 · GBT 20) 씨는 "총학에서 제시한 공약은 많은 도움이 됐지만 학생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약이 많아졌으면 좋겠단 아쉬움을 드러냈다.

총장투표에서 학생의 투표 반영률을 높이는 등 학생 유권 참여에 대한 부분도 다음 총학에게 달려있다. 강지우(국제 19) 설캠 총부학생회장(이하 강 부회장)도 "학생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생기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불균형한 학생 투표 반영률은 후대의 숙제로 남았다"며 이를 언급했다. 이번 한 해를 책임진 두 총학은 앞선 양캠 총학의 노력을 이어 교내에서 학생의 권리를 끌어올린 큰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이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될 3번의 선거를 통해 총장선거의 보완점을 찾으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5%를 넘어 균형 잡힌 학생의 총장 투표 반영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중복학과 통폐합 문제도 다음 총학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현재 설캠에선 제56대 총학 선거에 '이룸'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며 글캠은 제43대 총학 선거에 '외대의 봄'이 심사를 통과해 최종후보로 등록된 상태다. 이들이 학생을 위해 편의와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 공약을 낼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으로 총학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켜보며 학생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양채은 기자 03chaeeun@hufs.ac.kr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논란, 규제와 자유 사이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에 일부 여론에선 데이터와 기술을 확보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사업 확장 현황△독과점 규제에 대한 의견 대립△해외의 빅테크 기업 규제 사례를 알아보자.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빅테크 기업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대 IT 기업, 이른바 빅테크 기업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지난 2010년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는 '카카오톡(이하 카톡)' 이란 메신저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카톡의 성장을 바탕으로 카카오는 보유하고 있던 IT 기술과 데이터를 접목해 다양한 사업에 착수했다. 2016년 카카오의 계열사 수는 45개였으나 인수와 합병을 통해 △네일샵△대리운전△미용실△택시 등 각종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이번 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18개까지 늘어났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57조 원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 4위를 차지했다.

계열사가 늘어날수록 잡음 역시 커지고 있다. 미용실 예약 애플리케이션 '카카오 헤어샵' 은 고객이 해당 미용실을 처음 방문할 경우 이용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제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의 평균 수수료는 10%대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업체의 2배 수준이다. 자영업자들은 물건 판매 시 발생하는 할인율과 서비스에 입점하기 위한 경쟁까지 고려하면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약 40%대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입점 업체 관계자는 "카카오는 플랫폼 파워가 강력해 중소기업 간에 입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른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역시 독과점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네이버는 설립 초창기 검색 엔진 서비스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이번 해 네이버의 포털시장 점유율은 약 60% 이상이다. 포털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며 네이버는 △쇼핑△웹툰△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기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약 63조 원으로 국내 3위를 차지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계열사 확장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각 회사의 금융 사업체 '카카오뱅크' 와 '네이버파이낸셜' 의 금산분리 위반 여부가 부각됐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적용돼 산업자본 비율이 34%까지 허용된다. 실제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약 27% 보유 중이다. 이 자본에 힘입어 지난달 기준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약 32조 원으로 우리나라 11위를 차지했고 은행업 분야에선 1위를 점했다. 이로써 기업인 카카오가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재원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카카오뱅크와 달리 직접 금융업 인가를 획득하지 않고 미래에셋과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금산분리 위반 논란에서도 카카오보다 안전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네이버의 제휴 전략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 진행이 위기를 맞게 될 거란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온플법 도입에 대한 의견 대립

지난달부터 민주당은 빅테크 기업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온플법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온플법은 매출액 100억 원, 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온플법의 주요 골자는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 교부 의무△계약 내용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등이다. 빅테크 기업의 알고리즘 및 검색순위 조작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갑질을 막겠단 의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단체는 이 같은 온플법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입점 ·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나 온플법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선 두 가지 문제점을 예상한다. 첫 번째는 온플법의 중복 규제 우려다. 온플법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세 가지 안이 따로 존재하는 상태다. 세 가지 안이 전부 입법되면 무분별한 중복 규제로 이어져 기업의 합리적인 플랫폼 사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에 지난달 23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에선 중복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다른 문제는 온플법 도입 자체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 물론 오히려 중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단 점이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온플법 도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 감소로 인해 1조 4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의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 분석했다. 매출이 감소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수수료를 높여 떨어진 매출을 올리는 방안을 모색할 우려가 있다. 기업이 수수료를 올리면 그 부담은 다시 중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

◆나아가야 할 방향

빅테크 기업 규제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해 미국 역시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의 빅테크 기업에 독점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하원은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플랫폼독점종식법△호환성 및 경쟁증진법△합병수수료 현대화법의 5가지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들은 인수 · 합병과 해당 기업만의 생태계 구축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 독점 반대 성향이 강한 법조인 △리나 칸△조너선 캔터△팀 우를 정부 주요 부처 보직에 앉히기도 했다.

유럽 역시 지난해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자기 사업 우대' 를 방지하겠단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플랫폼은 경쟁이 공정하고 이용자 친화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단 내용이다. 일본도 지난 2월 '플랫폼 투명화법' 을 도입했다. 주요 플랫폼 기업이 △전자상거래△정보검색△SNS 등 소비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무기로 중소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제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목적이다.

빅테크 기업이 기존 법의 규제를 피해 독과점 횡포를 부리면 시장경제의 원활한 흐름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내 기업이 많이 생겨나도록 기업의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단 의견 역시 존재한다.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경쟁정책도 혁신이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며 "최적의 규제 수준을 밝혀내기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적절한 규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규제 당사자인 빅테크 기업도 시장지배력 행사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를 포용하며 혁신의 진정성을 드러내야 한단 의견을 밝히며 기업 측면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과점을 막는 동시에 자유 경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하는 적절한 규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장래산 기자 03raesan@hufs.ac.kr

www.시사 한 줄 토픽.com

정치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연희동 자택에서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 · 12 군사 반란과 5 · 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기일은 연기됐고 5 · 18 당시 헬리콥터 사격 증인인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경제 기준금리 0.75%에서 1%로 인상돼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0.25%p 인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로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번 기준 금리 인상이 급격하단 시선도 존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의 금리 정상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 시청각 장애인 영화 관람권 청구 소송, 2심 일부 승소

시청각 장애인이 "차별 없이 영화를 보게 해달라"며 △롯데시네마△메가박스△CJ CGV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복합상영관이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화관 사업자들에게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에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국제 벨라루스-폴란드 난민 사태

벨라루스가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난민을 받아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의 국경 지역으로 이동시키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폴란드는 국경선에 철조망을 설치해 난민들의 불법 월경을 막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벨라루스의 배후에 있는 러시아가 유럽을 견제하려 한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 요소

최근 요소수를 비롯해 △규소△마그네슘△산화텅스텐△수산화리튬 등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 생산기지가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어 △소재△부품△장비와 완성품의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물류난까지 더해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현상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손종칠 우리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글로벌 공급망 차질 현상과 세계 경제에 파생된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손종칠 우리학교 경제학부 교수

Q1. 세계적으로 공급망 불안 현상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공급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공급망이란 원자재 및 중간재를 투입해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고 완성품을 다시 세계 각지로 배분하는 과정을 뜻하는 국제 분업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부품은 주로 중국과 동아시아의 공장에서 원자재를 가공해 만들어요. 이 부품들은 조립공장으로 보내져 스마트폰이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스마트폰은 다시 전 세계 곳곳으로 보내지죠. 각 과정 하나하나가 고리라면 이런 고리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사슬을 이뤄요. 이를 공급 사슬, 다른 말로 공급망이라 부릅니다.

Q1-1. 세계적으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각 과정의 고리를 연결하는 물류체계가 혼란을 빚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원자재△부품△완성품이 제 때에 적당한 운임가격으로 물류체계를 통해 필요한 곳으로 전달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해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막혀있던 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들은 이번 해 수요량이 늘어날 걸 예측하지 못했고 전체적인 생산을 줄였죠. 부품을 쌓아두지 않고 조립 직전에 받는 '적기생산 방법(Just in time)'을 사용하는 기업도 많았어요. 늘어난 수요에 비해 물건을 담을 컨테이너나 이것을 실을 선적 모두 부족한 품귀 현상을 빚자 이는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물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 인력의 현장 복귀가 늦어지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Q1-2. 공급망 위기가 현재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중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급망 위기는 생산과 물가 상승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중국은 석탄 수입이 부족해지자 석탄 발전이 줄어들었고 다수의 공장이 멈춰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미국의 경우 소비자물가는 5% 상승하고 중국은 생산자물가가 10.7% 상승하는 등 세계적으로 고물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Q2. 최근 우리나라에선 경유를 넣는 자동차가 뿜어내는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물질인 요소수 품귀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규소△마그네슘△산화텅스텐△수산화리튬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이같이 각종 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일상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원자재를 주로 공급하는 개발도상국에선 백신 접종률이 낮아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원활한 물류체계가 복구되지 못하고 있어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과정에서 중국과 호주 간의 석탄 무역이 중단되면서 요소수 사태가 불거진 측면도 있죠.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호주는 중국과 여러 무역 분쟁을 겪었고 중국은 그 일환으로 호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금지했죠. 석탄이 부족해지다 보니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하는 요소도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중국은 요소수 수출의 제약을 강화했고 이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Q3.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적이고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겐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요소수 부족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나라 문제란 것을 일깨워 줬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원자재 생산 및 물류체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한 여전히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죠. 선진국의 물류체계도 일상 회복 속도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선 요소수 사태의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다양한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수입품이 1,850개나 되다 보니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우려되기도 하죠. 그중에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인 2차 전지에 필요한 원자재인 △리튬△망간△흑연 역시 포함돼 있어요.

Q4. 1970년대에도 당시 오일쇼크로 인해 세계적인 공급 충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 부탁드립니다.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오일쇼크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생산과 소득이 크게 감소했어요. 1차 쇼크의 경우 원유 가격이 한 달 사이에 4배가 상승했고 2차 쇼크 땐 2년에 걸쳐 원유 가격이 3배 상승했습니다. 그때의 원자재 가격 충격과 비교하면 현재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 폭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의 공급망 차질에 따른 물가 상승은 오일쇼크 때와 비교하면 단기적이며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일쇼크 땐 급격한 원유 가격의 상승이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전가돼 생산 자체가 줄어드는 충격을 줬어요. 이번 공급망 차질에선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물가 상승에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총수요의 확대가 물가 상승의 요인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급망 충격의 경우 물가 상승과 일정한 경기의 상승세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죠.

Q5.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국제적인 물류체계의 문제로 다국적인 공동 노력이 요구돼 우리나라만의 힘으로 이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자재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적인 원자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일정하게 비축하는 계획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또 다른 광물 부국인 칠레에 리튬 공급망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Q5-1. 해외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개발도상국의 경우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고 저렴한 코로나19 치료제의 획기적인 보급을 통해 위기 이전의 글로벌 공급망을 복구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선진국은 신흥시장국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 노력이 필요하죠. 또한 선진국의 경우엔 물류 산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책 등 정책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어요. 또한 총공급과 총수요 간의 급격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시적 안정화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공급망 위기로 발생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테이퍼링**을 실시했고 다음 해엔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글로벌 가치사슬: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설계△생산△유통△폐기 등 전 범위에 이르는 기업의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되는 것.
**테이퍼링: 시장에 돈을 푸는 행위인 양적완화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정책.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 10. 18(월) ~ 10. 22(금)	2021.11. 22(월) ~ 11. 26(금)
면접전형	**2021. 11. 6.(토) 10:00**	**2021. 12. 11.(토) 10:00**
합격자 발표	2021. 11. 9.(금) 16:00 예정	2021. 12. 24.(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1. 11. 22(월) ~ 26(금) 예정	2021. 12. 27(월) ~ 31(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모 집 전 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영어교육	•어린이영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유아교육
	•상담심리	•독서논술교육	•혁신미래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접수방법
· STEP1-인터넷 원서 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Uwayapply.com))
· STEP2-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 페 이 지 : gse.hufs.ac.kr
○ 이 메 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겨울 왕국 속 붉은 심장, 모스크바

책이나 매체를 통해 외국 문화나 역사를 배우기란 쉽지 않다. 말보단 행동을, 이론보단 경험을 선호해 유학을 결심했다. 2019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에 운 좋게 합격해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러시아에서 생활했다. 2월의 모스크바엔 눈보라가 흩날리고 거리엔 눈이 가득 쌓였다. 맑은 하늘이 드물어 날씨가 화창한 날엔 기분이 좋았다. 눈이 자주 내려 길엔 항상 흙탕물이 가득했고 신발과 옷은 쉽게 더러워졌다.

입국 당일 숙박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모스크바로 출발하기 전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민족우호대학교(People' s Friendship University of Russia) 국제교류담당자와 기숙사에 관한 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는 앞으로 생활하게 될 기숙사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도착한 기숙사에선 경비원이 외국인 출입을 금했다. 교환학생 신분임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경비원은 통행증이 없음을 지적하며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학교에서 호텔로 이용하는 건물을 알려줬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보니 비싼 숙박 요금을 내고 하룻밤을 보냈다.

러시아에서의 고난은 3월 초까지 계속됐다. 학부 수업을 듣기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이런 일상에 지쳐갈 때 도시의 명소 중 하나인 붉은 광장에 가게 됐다.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성 바실리 성당(St. Basil' s cathedral)은 러시아의 역사가 깃들어있는 장소이며 모스크바의 상징이다. 성당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동안의 우울함이 치유된 기분이었다.

현지에서의 식생활은 우리나라만큼 풍족하지 않았다. 시내에서 맛이 괜찮은 한식당을 발견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기숙사 내에선 초밥과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곤 했다. 시간이 부족했기에 매일 아침 수업 전엔 컵라면을 먹었다. 또한 모스크바에 있는 쩨레목(Tepemok)에서 △보르시(Borsch)△블린(Blini)△샐러드△전통 음료 등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겨울왕국' 은 추운 러시아 땅을 의미하고 '붉은 심장' 은 러시아인의 강렬함과 따스함을 빨간색에 빗댄 표현이다. 특유의 무표정한 인상으로 인해 차가울 것이라 생각했던 러시아인은 예상과 달랐다. 기숙사 룸메이트의 남동생, 예비학부 교수를 비롯해 여러 도움을 줬던 이들을 통해 러시아인의 따듯한 마음씨를 느꼈다. 러시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내게 지난 6개월은 특별한 시간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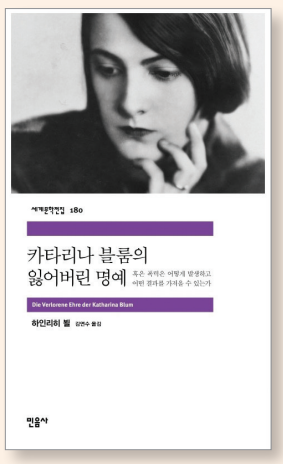
임희령(국제지역 · 러시아 16)

읽어서 세계속으로

독일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 칼보다 무거운 펜의 위력 -



책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는 주인공 '카타리나 불룸' (이하 카타리나)이 독일의 유력지 '차이퉁' 의 기자 '퇴트게스' 를 권총으로 살해한 후 자수했단 사실을 밝히며 시작된다. 카타리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독자는 이내 궁금증에 빠진다. 카타리나는 왜 기자를 살해했는가. 어째서 살인 이후에 일말의 후회도 느끼지 못하는가. 소설은 익명의 화자가 등장해 자신이 조사한 자료와 여러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 사건을 재구성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런 형식은 독자로 하여금 일련의 사건들이 현실적인 사태처럼 다가오게 한다. 독자들은 화자의 보고서를 읽으며 현실의 처참한 일면을 차츰차츰 발견한다.

카타리나는 27세의 평범한 여인으로 늘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주위의 호감을 사던 총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댄스파티에서 만난 '괴텐' 이란 남자와 사랑에 빠지고 같이 하룻밤을 보낸다. 그런데 이튿날 경찰이 카타리나 집에 들이닥쳐 수색을 벌이고 그를 연행한다. 괴텐은 은행 강도에 살인 혐의까지 있는 인물로 그동안 경찰과 언론에 계속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카타리나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그는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 언론, 특히 차이퉁 지는 괴텐과 카타리나를 테러리스트 공산주의자로 몰아가고 그는 순식간에 살인범의 정부가 된다.

사실 이 소설은 작가인 '뵐' 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됐다. 독일의 일간지 '빌트' 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학생 운동 단체를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보도했고 뵐은 이를 비판하는 글을 다른 일간지에 실었다. 그러자 빌트와 그 계열사 언론은 지면을 통해 작가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실 왜곡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테러조직을 옹호한단 오해를 받게 된 뵐은 1972년 노벨 문학상 수상 전까지 온갖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뵐은 해당 사건 이후 소설을 통해 독자의 저속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언론이 어떻게 한 개인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해 가는지 처절하게 보여 준다.

뵐은 노벨상을 받은 직후 인터뷰를 통해 "난 비록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혼자서 글을 썼지만 항상 뭔가에 연결돼 있다고 느꼈다"며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 의해 체험되고 경험된 것과 관련된 느낌일 것이다"고 전했다. 뵐의 작품은 항상 현실 세계와 동시대의 사회적 맥락이란 그물망에 얽혀 있었다. 1970년대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황색언론의 횡포가 만연했던 독일 사회에서 벨의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이 1970년대의 독일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짜뉴스는 양산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개인의 명예는 회복할 길이 요원하다. 독자는 이 책을 통해 언론의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정봉비 기자 02jbb@hufs.ac.kr

글로벌캠퍼스 설립 41주년 기념 '캠퍼스 SSUL展'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⑥ 글캠의 상징물, 나야나! 나야나!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정문을 지나 올라오면 길이 세 갈래로 나뉘는 지점이 있다. 왼쪽 길로 올라가면 국제사회교육원을 만날 수 있으며 오른쪽 길로 올라가면 우리학교 학생의 보금자리인 기숙사가 있다. 정면으로 직진하면 △공학관△도서관△백년관△학생회관 등 학교 건물이 위치한 캠퍼스 내부로 들어가게 된다.

세 갈래 길의 중심엔 '정심대도(正心大道)' 란 글귀가 적힌 커다란 비석이 세워져 있다. 정심대도는 '어떠한 경우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떳떳한 길을 택하라' 는 의미다. 이는 김흥배 우리학교 초대 이사장의 신념을 담아낸 글귀로, 그가 우리학교 학생에게 남기고 싶었던 지침을 담은 문장이다. 이 비석은 1986년에 충청북도 단양의 한 강에서 직접 공수한 돌로 작업한 것이다. 탑의 글씨는 우리나라 근현대 서예계의 대가 중 하나인 여초 김응현 선생의 서체다. 1997년 3월 17일에 발행된 외대학보 685호엔 이 탑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있다. 왕산은 풍수학적으로 음기가 강한 곳이라 명수당에 남학생들이 빠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곤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남성성을 상징하는 탑을 세웠단 것이다. 우리학교 학생의 뛰어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1980년대 정심대도

▲1990년대 진리평화창조석

▲1990년대 진리평화창조석 제막식

▲학생회관 앞 진리평화창조석

현재는 사라졌지만 글캠엔 우리학교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비석이 자리했다. 우리학교의 창학정신을 담은 '진리평화창조석' 이다. 사진과 같이 세로로 5m가 넘는 비석은 지금의 왕산문화예술관 자리에 세워졌었다. 이 비석은 철거됐지만 창학정신을 새긴 다른 비석은 현재 학생회관 앞에 우뚝 서서 우리학교의 창학이념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다.

정심대도 탑과 진리평화창조석은 우리학교 학생이 바른 마음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기록 및 사진 제공: 역사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 문화 교류를 이끄는 정길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을 만나다

정길화(서양 · 서반아어 78)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이하 정 원장)은 1984년 MBC 교양국 PD로 입사 후 35년간 △'인간시대' △'PD수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그는 △언론인△저자△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후 이번 해 4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에 취임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와 문화가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요즘 국가 간 문화교류 및 협력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정 원장을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서반아어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릴 적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우나무노의 '안개'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대중의 반역' 등의 번역본을 읽으며 스페인어에 매력을 느꼈어요. 스페인은 △교양△문명△지식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문화와 역사에 강점이 있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단 생각에 서반아어과로의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Q1-1. 우리학교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3학년 때까진 학보사 기자로서의 정체성이 가장 컸어요. 그러다 보니 전공과목에 대한 열의를 쏟진 못했죠. 3학년이 돼서야 ROTC를 하며 비로소 학점 관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엔 성적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되돌아보면 여러 활동을 하며 값진 경험을 얻긴 했지만 하나에 확실하게 몰두하진 못했단 아쉬움이 있어요.

Q2. 우리학교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치열하게 대학 시절을 보내고 싶었어요. 평소 작문에 자신 있기도 했죠. 사람은 원래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자 하잖아요. 글을 쓰고 책 읽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단 판단 아래 학보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Q2-1. 학보사 기자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시 우리나라는 긴급조치 시대였어요. 10.26으로 휴교령이 내려지고 신문 발행이 막히는 등 여러모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야간통행금지도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조판 작업이 밤늦게 끝나버리는 바람에 귀가하지 못하고 여관방에서 동기들과 쪽잠을 청했던 기억이 나네요.

Q3. 우리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생활에서 도움이 된 게 있나요?

이문동에서 보낸 모든 시간과 경험은 피가 되고 살이 됐다고 생각해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엄중한 시대의 질곡 속에서 당시 대학인들은 학우들과 함께 그 시대 상황에 대해 고민하며 치열하게 토론했죠. △교우관계△전공 공부△학보사 등 제가 겪은 모든 게 지금의 저를 이루기까지 직 · 간적접으로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Q4. 시사교양 PD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보사 기자로 활동하며 쌓은 언론에 대한 관심이 그 단초가 됐어요. 치열한 독서와 토론을 하며 늘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보사에서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를 했죠. 이러한 경험이 결과적으로 PD란 직종을 꿈꾸고 이루는데 도움이 됐어요.

Q5. MBC에 입사한 후 △'세상사는 이야기' △'인간시대' △'PD수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을 연출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과 회차는 무엇인가요?

△ '인간시대' 의 최진실 편△ 'PD수첩' 의 신문개혁 편과 북한 식량난 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의 친일파 3부작 등이 기억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고 각종 상을 받는 등 사회적인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6. 방송 연출에 그치지 않고 △'기록의 힘, 증언의 힘' △'거꾸로 선 세상에도 카메라는 돌아간다' △'우리들의 현대 침묵사' 등의 도서를 집필하시기도 했습니다. 저자로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전 평소 기록을 중시해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제작기를 남기려 합니다. 미디어는 당대 사회상의 반영이고 이것은 기록을 통해 재구성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경험을 글로써 세상과 공유하면서 성찰과 반성을 통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Q7. 이번 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에 취임하셨습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란 어떤 기관이고, 현재 원장님께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국제 문화 교류와 한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재단 법인입니다. 원장의 임무는 조직을 관리하고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PD로 활동했을 때의 제 경험과 전문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Q7-1. 오랜 시간 언론인으로 계시다 문화기관단체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MBC 재직 중 중남미지사장 겸 특파원으로 한류콘텐츠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요. 박사논문도 중남미 한류 현상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제가 PD로 활동했던 35년을 수식하는 키워드로 △다큐멘터리△저널리즘△한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관련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Q8. 언론인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끊임없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자료조사△취재△기사 작성△인터뷰 등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대안을 생각하는 전문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속사나 직종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는 지성적인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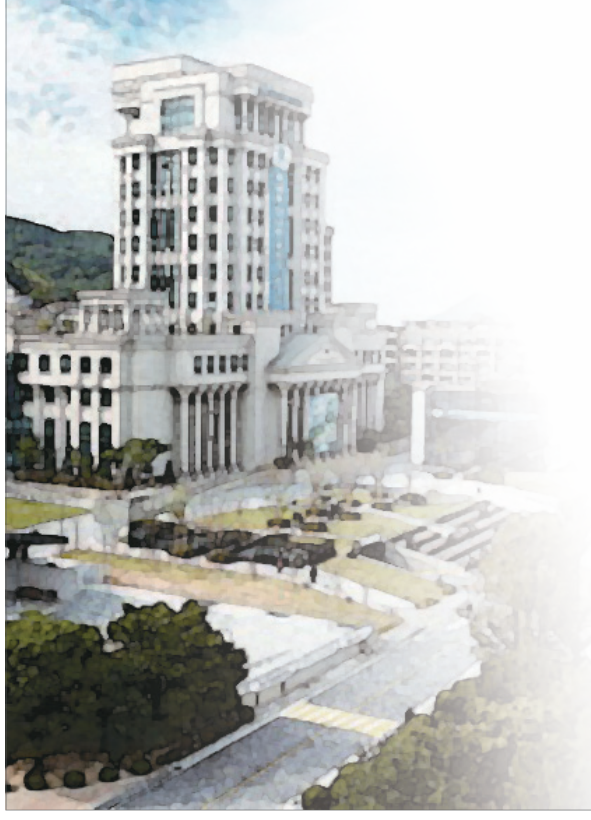
Q8-1. 대학생의 입장에서 그 자질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외국어 공부와 독서가 중요한 미덕이라고 봅니다. 외국어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 외국어로 작성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외신 기사가 쏟아져 나오지만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번역 기사를 기다리거나 번역기를 사용하는 등 시간이 소모되죠. 그래서 전문통역가급의 실력은 아니더라도 번역에 의존하지 않고 외신 기사를 볼 정도의 실력은 필요하다고 봐요.

다음으로 독서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화제 및 문제 작품을 탐독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결핍돼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린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도 미래로도 갈 수 없어요. 따라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 독서를 통해 대중의 △결핍△욕망△희망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2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2학년도 전기 입시 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1.10.18(월) ~ 10.29(금)	2021.11.22(월) ~ 12.03(금)
고사장 발표	11.03(수) 15:00	12.08(수) 15:00
면접전형	11.06(토) 10:00 예정	12. 11(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1.17(수) 15:00	12.22(수)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22(월) ~ 11.26(금)	12.27(월) ~ 12.31(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 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늦은 고백

외대학보 마지막 마감을 끝마치며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학보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마지막 마감이 끝나면 행복할 줄 알았다. 하지만 학보사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후련함인지 아쉬움인지 모를 감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첫 마감 때 두근거리던 마음으로 이소정 앵커를 인터뷰했던 기억부터, 마지막 마감 때 다 같이 사진을 찍은 기억까지 모두 정돈된 빨래처럼 차곡차곡 쌓였다.

기자란 직책은 사실 내게 과분하다. 난 글을 잘 쓰는 사람도, 기자에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좋은 기사를 쓰기보단 멋진 글처럼 보이는 걸 더 중요시했다. 자존심만 강해 매번 수정사항에 반기를 들었다. 편집장이 된 후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매번 기자들을 가족이라 칭했지만 내 감정을 숨기지 못했던 때도 있고, 작은 것 하나하나 챙겨주지 못한 때도 많았다. 부족한 게 많은 날 믿어준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다.

사람들이 싫었다면 하지 못할 일이었다. 많이 배웠고, 많이 느꼈다. 나보다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기자에게 인생을 배우기도 했고, 따뜻한 조언을 건넸던 기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다. 학보사실에서 마감 작업을 하며 나눈 많은 이야기가 아직까지 뇌리에 선명하다. 99기부터 103기까지 스쳤던 모든 사람에게서 행복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

부끄럽지만 편집장을 맡기 전과 비교해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 편집장은 흔들리는 부표들을 보며 항로를 찾아나가는 직책이었다. 취재를 하며, 기자들과 이야기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억압과 차별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단 걸 깨달았다. 수많은 소수자가 있었고 그들 중 누군가는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난 너무 좁은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고, 이 세계가 갈수록 행복해지고 있다고 믿었다. 대학이란 작은 사회에서 학생기자는 때론 학생이란 꼬리표를 떼어내고 활동해야 한다. 하지만 편집장으로 일하며 그러지 못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아쉬운 게 너무 많다. 모든 걸 내려놓고 외대학보의 독자로 돌아간단 사실이 마냥 좋게만 다가오진 않는다.

대학교 1학년 시절, 군대를 다녀오면 친한 선배가 모두 졸업한단 소식을 듣고 많은 걱정을 했다. 내 대학생활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다. 복학 후 내 대학생활은 긴 여백으로 이어졌고, 이를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외대학보 임기를 마쳐 다시 내 인생의 여백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지만, 외대학보만큼 이 여백을 채울 곳은 찾지 못할 것 같다. 숱한 밤을 샌 것에 대해, 내 젊은 날의 열정을 쏟았던 것에 대해 보상을 바라지 않았지만 너무 큰 선물을 받았다. 수습기자부터 편집장까지 쉼 없이 달려온 모든 날들을 여기에 두고 간다. 너무 늦지 않은 고백이길 바란다.

김현익 편집장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오베라는 남자'를 읽고]
올바른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한 해에도 몇십 개씩 쏟아지는 최신형 전자기기를 떠올려보자. 언제부터 내가 가진 휴대전화는 시대에 뒤처지게 됐을까. 언제부터 휴대전화는 쉼 없이 개발되고 약정이 끝난 기기들은 산처럼 쌓이게 됐을까. 우린 언제부터 최신이란 말에 열광하게 됐을까. 이렇게 최신을 쫓는 사회에서 구형이 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책 '오베라는 남자'의 주인공 '오베'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다.

오베는 아버지로부터 수리 기술을 배워 철도회사에 취직한다. 그는 40년을 한동네에 살며 까칠하고 사회성 없는 성격으로 이웃과 늘 싸우는 남자였다. 항상 정해진 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맡은 일을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는 면모도 지녔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동네를 시찰하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찾아냈다. 변화하는 사회를 싫어하는 그에겐 근면함과 지금까지 지켜온 규칙이 세상의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베는 기계의 도입으로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한다. 직장을 잃은 괴로움을 잊기도 전에 아내마저 병으로 죽자 그는 계속해서 자살을 시도한다. 그러나 매번 의도치 않은 이웃의 방해로 실패한다. 까칠한 성격으로 인해 이웃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그는 이웃의 고장 난 물건을 수리해주며 점차 이웃과 가까워진다. 겨울이 되자 오베는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장례식엔 수많은 이웃이 찾아오며 소설은 마무리된다.

오베는 쉼 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표한다. 소설 속 그는 이웃을 통해 변화한 사회에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현실 속 노인 문제와 소설 사이엔 큰 괴리가 존재한다. △온라인 예매△인터넷 뱅킹△키오스크 등의 등장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는 더욱 심화했다. 정부 차원의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디지털 정보 격차 및 고독사 등의 지표를 확인하면 여전히 노인 문제 해결의 길은 멀어 보인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때다. 책에 '평생 하나만을 전문으로 해온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란 문장이 있다. 효율과 발전이란 이름으로 구성원의 일부가 배제되는 사회는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가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속도가 있다. 오히려 꾸준한 속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오베가 올바른 속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율성이 발전의 1순위가 아니란 판단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닐까 싶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모비딕'을 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오보가 전해지길

2011년 개봉한 영화 '모비딕'은 우리나라 최초로 음모론을 다룬 영화다. 영화는 1990년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을 모티브 삼아 제작했다. 영화는 어느 날 발암교가 폭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사건을 추적하던 '이방우' 기자 앞에 고향 후배 '윤혁'이 나타나 자료를 건네며 발암교 사건이 조작됐다고 말한다. 이 말을 접한 이방우는 동료 기자와 특별취재팀을 꾸려 진실을 향한 사투를 시작한다. 기자들은 취재를 통해 보안사가 위장 카페 모비딕을 중심으로 일반인 사찰 활동을 한단 사실을 알게 된다. 이후 그들은 보안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추격당하며 온갖 고초를 겪는다. 포기하지 않고 취재를 이어가던 중 그들은 다음 날 제주도로 출발할 비행기가 폭파될 것이란 음모를 발견한다. 이방우는 이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어야 한다고 상부에 호소한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사로 쓸 수 없단 이유로 부장의 반대에 부딪힌다. 이방우는 부장을 끝까지 설득해 결국 '오늘 오전 8시 20분 제주행 비행기 폭발 예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신문 1면에 발행한다. 그렇게 참사는 일어나지 않고 영화는 막을 내린다.

오보는 매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킨다. 영화의 결말에서 제주행 비행기 폭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기에 이방우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다. 실제론 비행기에 폭탄이 설치돼 폭발될 예정이었지만 대중이 이러한 사실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오보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시민을 살리기 위해 음모 기사를 내보낸 영화 속 기자들의 위대한 용기와 결단력에 경의를 표한다.

영화를 관람하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이 전한 승객 전원 구조 오보가 떠올랐다. 영화와 현실 속 기사 모두 오보란 공통점을 지녔지만 그 결과는 극명히 달랐다. 영화의 오보는 참사를 막았지만, 현실의 오보는 참사를 키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난 보도 역사에 길이 남을 오보가 전해진 뒤 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많은 언론이 참회하며 새로운 보도 준칙을 마련하는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창궐한 재난 상황에서 또다시 언론의 오보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검증 없이 그대로 기사로 내보내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기사들이 그 예다. 오보의 원인으로 단독과 속보 경쟁이 꼽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자의 부족한 사명감과 윤리 의식이 지적되고 있다. 참사와 재난의 국면에서 오보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언론사와 기자가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임세은 기자 02seeun@hufs.ac.kr

1062호 학보를 읽고

우리 손으로 만드는 외대의 미래

박주영(아시아 · 태국어 21)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대면 수업을 시작한 학교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교수님과 동기의 얼굴을 마주하며 수업을 듣는 게 감사한 일이란 걸 새삼 깨닫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업과 행사가 대면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돼 우리학교가 북적이는 모습을 찾길 바란다.

3면에선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축제 '우리의 온도'를 다뤘다. 온전히 대면으로 진행되지 못했단 한계가 있지만 모든 학우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글캠 총학생회 '온(ON)'의 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메타버스를 적용한 '게더훕스(Gather hufs)' 행사가 새롭게 느껴졌다. 가상 공간 속 학교의 모습을 구현해 학우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단 점이 흥미로웠다. 또한 기사 말미에 축제의 아쉬웠던 점을 다뤄 우리학교 축제가 나아갈 방향을 다뤘던 부분이 인상 깊었다.

6면과 7면에선 제12대 총장 선거에 대해 다뤘다. 학생이 참여하는 첫 선거인 만큼 학우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공약이 나왔지만 통보식 행정 개선에 관한 공약이 가장 눈에 띈다. 지금까진 학교가 일방적으로 학내 지침을 정한 뒤 재학생에게 통보하는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모든 후보가 쌍방향 소통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학교와 재학생 간의 소통 방식 변화가 기대된다. 후보자의 공약이나 약력 등의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획 기사를 통해 여섯 후보의 공약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 총장 선거에 관심 있는 재학생이라면 외대학보 1062호를 읽어보면 좋을 듯 하다.

이번 총장 선거는 재학생이 참여하는 첫 선거인 만큼 학생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외대학보 또한 1063호를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발행이 마무리된다. 작더라도 독자위원을 통해 학보에 기여할 수 있어 기뻤다. 한 학기 동안 학교 안팎의 여러 소식을 전달해준 외대학보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1062호 학보를 읽고

미래를 알고 싶다면 당신의 현재를 보라

심현정 (국제 · 프랑스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부쩍 쌀쌀해진 날씨와 캠퍼스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이번 학기도 끝을 향하고 있음을 느낀다. 위드코로나(With Corona) 선포와 함께 약 2년 만에 캠퍼스를 다시 찾은 지금, 학생들은 낯설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던 2학기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을까. 이번 1062호는 그간의 발자취를 점검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사로 구성됐다.

먼저 2면에선 △총회△특강△학술대회 등을 통해 학문의 미래를 조망하고 학생 복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려는 학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우리학교 개교 67주년 기념식 및 초청 만찬을 다룬 기사에선 긴 역사 속에서 꾸준히 성장한 재학생과 졸업생이 우리학교에 대해 가진 자부심을 생생하게 전달받았다.

3면에선 새롭게 찾아온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축제를 다뤘다. 비대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축제에 도입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기존의 단순한 공연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교수진과의 밸런스 게임(balance game)' △'세민전 온 더 블록' △'영지에게 물어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의 일상을 예능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기획력이 돋보였다. 하지만 학생의 많은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안타까웠다. 다음 축제는 모든 학생이 즐길 수 있길 바란다.

4면과 5면에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문제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 저해 현상을 다뤘다.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상황에도 귀를 기울이게 해준 기사였다. 해당 기사를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게 됐다.

6면과 7면에선 제12대 총장선거의 주요 일정과 여섯 후보의 공약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처음으로 학생에게 선거권이 주어졌고 그만큼 학생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반영한 공약이 눈에 띄었다. △장학금 확대△통보식 행정 개선△학제 개편 등 그간 학생이 외쳐온 것들이 반영될 앞날을 기대해 본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당신의 현재를 보라'란 명언이 떠오른다. 1062호에서 다룬 기사처럼 현재까지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학교의 향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바란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더 나은 학교를 위한 발걸음

이번 해의 마지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백신 접종 대중화에 따라 우리학교도 제한적 대면 수업을 시행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의 유행으로 일상 회복이 또다시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외대학보 1063호는 우리학교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획기사로 구성했다. 3면엔 양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양캠 총학)에 관한 기사를 담았다. 양캠 총학이 선거 당시 강조했던 공약에 대해 되돌아보고 한 해 동안 그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점검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총학에 대한 우리학교 재학생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점이다. 만족도 설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캠퍼스를 구분하다 보니 모집단을 대변할 수 있을 만한 표본을 얻지 못했고, 이를 기사에 싣기엔 무리가 있단 판단을 내렸다. 이는 과거 몇몇 기사 작성에서도 발생했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재학생 다수의 의견을 수집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10면에서 12면엔 총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6인과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해당 기사는 이례적으로 3면 기획 형태로 구성됐다. 주제의 무게가 무거웠고, 많은 정보량 탓에 이를 하나의 지면 하에 싣기엔 한계가 있었다. 총장선거 관련 기사를 작성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존재했다. 1062호의 총장 후보 공약 기사를 담당한 2명의 기자는 모든 후보의 공약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지만 지면 구성의 한계로 인해 작성했던 기사 분량의 절반이 탈락하는 상황을 겪었다. 또한 이번 호 총장 인터뷰 기사를 담당한 기자 3명은 기존 기획 기사 분량의 2배가 넘는 기사를 작성해와야 했다. 예민한 사안이었기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워 기사를 작성해야 했던 담당 기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 3학기 동안 다양한 주제의 기사를 작성하고 수정했지만, 이에 대한 궁극적 목표는 언제나 동일했다. 외대학보의 기사를 통해 학교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길 원했다.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학내 문제를 들여다 보는 경우가 많았기에 더더욱 진실만을 다루려 애썼다.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학보 기자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외대학보 소속 기자가 아닌 우리학교 재학생으로 돌아가려 한다. 외대학보의 기사가 학교 발전에 실질적인 자양분 역할을 하는 날이 오길 기도한다.

김민주 부장 01minju@hufs.ac.kr

한줄평...

외대학보 기자들의 한줄 기사

김민주: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김현익: 글의 힘을 믿습니다.

김하형: 최고의 선택, 외대학보!

박채빈: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신수연: 건설적이고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채은: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임세은: 외대학보 기자로서 임하며 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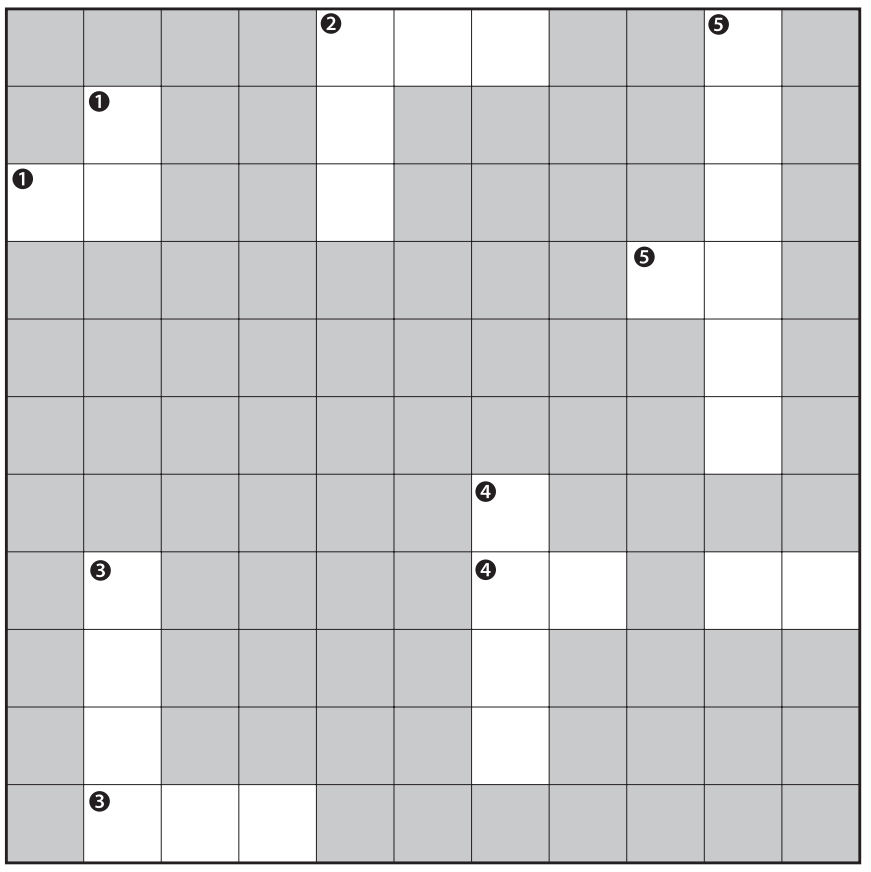
장래산: 다음 학기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나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 없는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정봉비: 학보에서 보낸 21년 잊지 않겠습니다.

차승연: 함께해서 뜻 깊었고 함께할 날들이 기대됩니다.

십자말풀이



가로

1. 늘어난 수요에 비해 물건을 담을 컨테이너나 이것을 실을 선적 모두 부족한 ○○현상을 빚자 이는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5면 참조)
2. "이에 지난달부터 민주당은 빅테크 기업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4면 참조)
3. 입점 업체 관계자는 "○○○는 플랫폼 파워가 강력해 중소기업 간에 입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4면 참조)
4. △인프라 개선△장학금 확대△재정 안정화△통보식 행정 개선△학내 구성원 복지 확대△○○ ○○ 등이 대부분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다.(9면 참조)
5. ○○의 원인으로 단독과 속보 경쟁이 꼽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자의 부족한 사명감과 윤리 의식이 지적되고 있다.(8면 참조)

세로

1. 지난달 17일 우리학교는 교육부에서 진행한 3주기 ○○○○○○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2면 참조)
2.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지켜 000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2면 참조)
3. ○○○○는 지난 2019년 열린 제1회 정기교류전 '삼동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 19)로 대학 문화 행사가 활발히 개최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진행됐다.(2면 참조)
4. 이로 인한○○○으로 가짜뉴스와 편파보도가 판을 치는 뉴스 과잉 범람 시대를 맞고 있죠. (12면 참조)
4.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제 55대 ○○○○ '외대에게'(이하 설캠 총학)와 글로벌 캠퍼스 제 42대 총학 'ON'은(이하 글캠 총학)은 한 해 동안 학생을 대변하며 목소리를 전하는데 힘썼다.(3면 참조)
5. △총장 선거 대응 TF팀 구성△○○○○○ 입후보자 공약집 배포△후보자 공약 분석 카드뉴스 제작. (3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공급망 재편 경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품목은 무엇일까? 품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로 반도체, 자동차, 전자 제품이다. 그런데 이 제품들은 생산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가령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3,200여 종류의 부품을 결합해야 하는데, 이 부품은 세계 도처에서 생산된다. 수많은 국가로부터 수입한 부품을 활용하여 한국산 자동차가 완성된다. 독일, 미국, 일본산 자동차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스마트폰 등 많은 제품의 공급망은 국제 분업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부품 조달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할 것인지 여부는 경제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생산과 거래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공급망 단절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공급망 운영에 있어 비(非)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은 자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은 이후 인도-태평양 동맹, 쿼드(Quad)*, 오커스(AUKUS)*, 양안관계(兩岸關係) 등의 사례를 통해 확대되면서 전면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역분쟁을 넘어 기술패권과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5G 이동통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해외의 공급망을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對)중국 입장으로 경쟁(Competition), 협력(Cooperation), 대결(Confrontation)의 첫 글자를 조합한 3C 전략을 밝혔다. 기후변화, 보건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에 있어서는 협력을 하겠지만, 핵심 기술의 영역에서는 경쟁을 할 것이며, 대만 문제와 같은 정치 · 안보 분야에서는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계기로 2035년까지 경제규모를 두 배로 키우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고, GDP 기준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을 불사할 것임을 밝혀왔다. IMF는 중국 경제가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경우 2030년 즈음에 미국 경제의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본다. 미-중 관계는 무역-금융 분야에서 매우 상호 의존적이다. 그런데 이런 상호의존성과는 별개로 양국 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EU)은 '개방적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정책비전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지만 산업, 통상, 외교에서 고도의 전략적 대응과 자율적 노선을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유럽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을 통해 미국과 안보 · 경제 협력을 강화하지만, 1~2위의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친구(friend)' 또는 '적(foe)'이라는 이분법 대신에 다면적이고 중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은 양국이 한국의 1, 2위 무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큰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쟁은 산업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정보통신장비 등으로 한국의 주력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는 거시적 차원은 물론, 개별 산업에 있어서도 미-중 갈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및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 우선 공급망을 다원화시키고, 유연한 설계를 통해 공급망 경쟁의 파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또한 G20, WTO, OECD 등 국제기구, 다자협의체를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57개국과 발효한 17개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상대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으로 구성된 비공식 협의체
*오커스(AUKUS): 2021년에 호주, 영국, 미국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

· 강유덕(LT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1hyunik@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강유덕
편집장 김현익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우리학교를 이끌 제12대 총장, 그 주인공은?

◆공통질문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미래 비전 제시' 와 '실행 능력' 을 꼽고 싶습니다. 비전이란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뜻하죠. 총장은 우리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우리학교만의 핵심 가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른 비전이 확립되기 위해선 철저한 계획과 추진 능력이 필요합니다. 총장은 리더로서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관리자로서 합리적 실행 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핵심 공약은 △유학생 유치△게임 지식 산업 유치△HUFS DATA UP 드라이브입니다. 유학생을 유치해 체계적 관리를 하고 해외캠퍼스 개발을 통해 재정 여건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학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을 해외로 보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젠 외국의 훌륭한 학생을 들여와 우리학교의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는 '바깥 외(外)' , '큰 대(大)' 로 바깥이 큰 대학을 뜻합니다. 1년에 1,000명의 유학생을 확보하면 80억 원의 재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교직원 복지△장학금 확대 등 학내구성원을 위한 복지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버클리 음악대학 유치와 라인게임즈와 넥슨과 같은 게임 기업 유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가 문화 · 예술 산업 분야로 개척해 나간다면 융 · 복합의 산학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우리학교 구성원의 데이터 역량을 배양하는 'HUFS DATA UP 드라이브' 입니다. 이를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체계나 교육 시스템을 데이터 기반으로 교체해 △교육△연구△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재정 혁신△아시아 문화허브 대학△융 · 복합 교육 및 데이터 역량 강화입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유학생 유치를 통해 우리학교의 부족한 재정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문화 · 예술 산업에 관련된 학과를 신설해 음악과 게임 산업을 넘나드는 아시아 문화허브 대학을 실현하고 싶죠. 마지막으론 대학구성원이 4차 산업혁명시기에 필수적인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학내엔 △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여러 소수자가 존재합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통위원회를 구성해 우리학교 현안에 대한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새터민△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소수자를 모두 포함하는 총장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교 본부와 소수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소수자를 위한 돌봄 계획도 마련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 학사운영방식 결정 과정에서도 소수자를 포함한 학내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5.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이 대학 존립의 중요 요소가 됐습니다. 우리학교만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학제개편을 통해 우리학교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중복학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모든 학과에 데이터 기반 융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인문학 중심인 서울캠퍼스의 경우,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학과 및 인공지능 등 첨단학과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넷째, 글로벌캠퍼스의 이공계 학과를 계약학과와 같은 첨단 학과로 점진적인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학제 개편을 통해 △우리학교 신입생 경쟁률 상승△재학생 중도탈락률 최소화△졸업생 취업률 상승을 유도해 우리학교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싶습니다.

6. 현 우리학교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학교엔 △공간 부족△교육과정△교육 플랫폼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공간 부족 문제는 서울캠퍼스의 경우 인문대학 뒤편에 강의 센터를 신축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또한 게임기업 유치를 통한 지식산업센터 건축으로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 공간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죠.

또한 미네르바 교양대학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춘 데이터 관련 교과목을 신설하고 싶습니다. 단과대학과 교양대학 별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해 모든 학생이 데이터 역량을 갖추도록 돕고 싶습니다. 매해 11월 '휴스 데이터 페스티벌(HUFS DATA FESTIVAL)' 을 개최해 △심포지엄△포트폴리오 전시회△우수작 시상△컨퍼런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추후 우리학교 졸업생이 취업할 때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교육 선진화센터와 같은 여러 교육 지원 기관의 역할을 확대해 교수진에 교육콘텐츠나 교육 방법론을 강화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과별로 모든 교육 콘텐츠를 통합해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중국언어문화학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아카이브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후보별 질문

1. 버클리 음악대학을 유치하겠단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버클리 음악대학 교과과정을 최대한 적용해 기존의 국내 실용음악학과와 차별성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버클리 음악대학에 기반한 문화예술산업대학 실용음악과는 △기악트랙△프로듀서 트랙△이론 및 실무트랙으로 구성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학교는 프로듀서 트랙에 집중해 공과대학과 운용할 계획이죠. 문화예술대학 건물이 건축될 때까지 음악시설 및 장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론 및 실무트랙의 과목을 먼저 개설할 것입니다. 고가의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버클리 음악대학과의 교류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 총 13번의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두 학교의 국제교류처간의 사업 문서도 교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3일 제이슨 카밀로(Jason Camilio) 버클리 음악대학 국제교류처 처장이 우리학교에 방문해 실무진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했죠.

2.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 안정화 공약을 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재정 확보 계획이 있나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계획은 재정 안정화를 넘어 우리학교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총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능력과 헌신으로 이뤄낼 자신이 있습니다. 아울러 2대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게임 산업 유치△관산학 클러스터 조성△버클리 음악대학 유치 등은 모두 연계된 사업입니다.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우리학교는 넉넉한 재정의 토양 위에서 피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5대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공통질문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양심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운영을 위해선 원칙이 살아 있어야 하고 정의를 지향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은 학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 곳이지 가격을 지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학교를 운영해 존재 가치가 확실하고 대체 불가능한 대학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학내 사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때 총장은 우리학교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과 함께 뒤따르는 책임 또한 가져야 하죠. 이에 전 총장으로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국제화△재정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학△지역학△한국학 교육을 통한 특성화입니다. 우리학교의 17만 동문 중 약 1만 5천 명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린 이 자산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HUFS와 디아스포라를 합친 훕스포라를 만들어 우리학교의 지역 특성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특수외국어를 제외하면 우리학교보다 언어와 지역학 교육을 잘하는 대학은 많습니다. 따라서 교수의 이중 소속 제도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정치와 언론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나 정치외교학과의 교수가 수업해주는 겁니다. 진정한 지역학은 여기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글로벌 외국학을 교육하려면 글로벌 한국학도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세계와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과정인 거죠. 전 세계 107개국에서 한국학 또는 한국어를 교육 중입니다. 한국어 교육과 영어가 가능한 학생에게 현지화 교육까지 진행한다면 우리학교 학생은 전 세계에서 교원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국제화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온라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강의△건강관리△학사지도가 한 묶음이 돼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학교도 심리 상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온라인 강의 플랫폼도 구상해야 합니다. 이에 국제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시대에 맞춘 강의 플랫폼인 '에듀훕스(Edu Hufs)' 를 기획 중입니다.

세 번째 연구와 교육에 초점을 맞춘 산학협력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재정 안정화입니다. 우리학교는 이미 정원에 비해 유학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수익 사업이나 발전기금을 위해선 연구와 교육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산학협력은 이미 그 자체가 연구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합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조력자' 와 '연결' 입니다. 총장은 앞에서 끄는 리더가 아닌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이 된다면 우리학교의 주인공이 학생과 교직원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연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학내 구성원과 교내외 환경이 파편화됐다고 봅니다. 이에 △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송도캠퍼스△온라인-오프라인△학부-대학원 간의 구조적 연결뿐만 아니라 △교수 사회△교직원-학생△남성-여성△내국인-외국인 학생을 연결하는 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4. 학내엔 △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여러 소수자가 존재합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훕스인권센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에도 여러 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교육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학생에게 기숙사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외대앞역과 학교 건물 사이 거리가 꽤 있는 편인데 장애인 학생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셔틀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여성 교원의 집행부 참여도 미미한 편이라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엔 전담센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이 대학 존립의 중요 요소가 됐습니다. 우리학교만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유사중복학과 문제 해결과 영어 공용화 및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교육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입학처장에 취임한 2012년 당시 60만 명이 넘었던 학령인구가 현재는 4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입시 홍보나 전략으로 입학 정원 미달을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는 형식으로 유사중복학과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영어 공용화 대학이 돼야 합니다. 영어 공용화를 통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학교는 45개 외국어를 바탕으로 K-문화가 뻗어 나가는 세계 각지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공연자△기획자△번역가 등을 양성하는 교육을 통해 우리학교만의 경쟁력 강화를 구상 중입니다.

6. 현 우리학교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문계 학생을 위한 데이터 교육△언어학과 트랙 분리△외국어 집중 이수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문계 학생을 위한 데이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사고는 기술과 결합한 인문학에서 나옵니다. 우리학교 인문계 학생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통 · 번역의 등장으로 우리학교의 이미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언어학과의 트랙을 2개로 나눠 한 트랙에선 인공지능을 전제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다른 트랙에선 기본 회화를 진행하는 방안을 기획 중입니다. △법률 서비스△외교△학술 교류 등은 사람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에 사라질 위험이 적습니다. 특히 언어는 소통뿐만 아니라 친교의 기능을 가집니다. 외국어 능력은 인공지능 통 · 번역과는 상관없이 필요합니다.

외국어 집중 이수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학기가 되면 1학기에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문법을 첫 학기에 전부 배운 뒤 1학년 2학기부터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별 질문

1.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양외국어대학교와의 교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및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우리학교는 외대비전 2028에서 이미 △러시아△북한△우리나라△중국 외국어대학교의 연구 협의체를 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몇몇 대학교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은 여럿 있습니다. 그 예로 전유택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했죠. 평양외국어대학교와의 교류가 완전히 꿈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북 간 대중 연예인 교류나 정치인 간의 대화는 이제 충분하다고 봅니다. 통일을 위해선 청년 세대가 학술 교류를 통해 충분한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지난 총장 선거에 결선까지 올랐으나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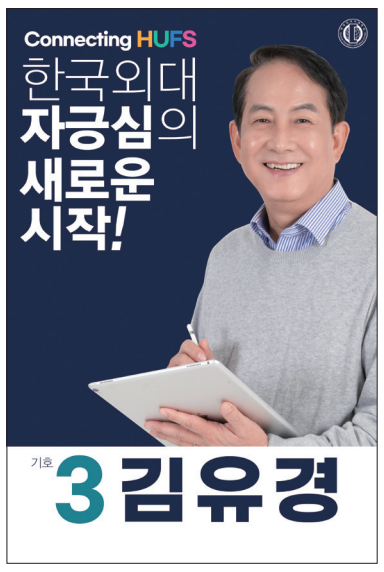
지난 제11대 총장 선거에선 2위를 했고 총학생회 주최의 학생 모의 선거에선 1위를 했습니다. 양 선거를 통틀어 많은 지지를 얻은 것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기대에 걸맞은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12대 총장 선거는 학내 구성원 모두 참여하게 된 선거라 우리학교가 전환기적인 변화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수△직원△학생의 3주체 협의체가 활성화됐으면 합니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

우리학교를 이끌 제12대 총장, 그 주인공은?

◆공통질문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소통력△추진력△통찰력입니다. 첫 번째로 대학 운영에 있어 총장과 구성원 간의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열린총장실을 개설해 재학생과 동문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또한 양캠퍼스에서 각각 정기적인 총장과의 만남을 개최해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학내 구성원의 힘을 모아 서울캠퍼스의 스마트도서관을 건립하고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추진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통찰력입니다. 우리학교는 현재 △시스템△브랜드△정체성△재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중 시급하지 않은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자원과 시간은 한정적이기에 우선순위를 정해 한정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커넥팅 홉스(Connecting HUFS) 사업△재정 혁신△행정조직 구조 개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핵심역량을 통해 우리학교 안팎을 연결하는 커넥팅 홉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엔 국내 플랫폼 기업 카카오(kakao)와 협업한 스마트캠퍼스 구축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캠퍼스의 메가클러스터(Mega Cluster) 조성을 위한 터널 건설 및 서울캠퍼스 인근 문화예술교육 허브 구성으로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특수외국어 중심의 헤리티지 칼리지(Heritage College)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학내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혁신입니다. 이에 재임 기간 내 최대 3,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구축하려 합니다. 또한 등록금 동결이란 전제 하에 △국가 지자체 지원사업△산학협력 전입금 확충△통번역 사업 등 교육사업을 통한 부대 수입으로 재정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학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 구조 개선입니다. 학내 구성원이 우리학교에서 더욱 행복한 경험을 하도록 돕는 고객경험설계(UX Design)로 타대학에서 느낄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학내 구성원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행정으로 학내 만족도 상승과 차별화된 학교 이미지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우리학교 자긍심의 새로운 시작' 입니다. 우리학교는 개교 이래 세계와 호흡하는 대학이란 호칭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학생은 실용외국어와 국제감각을 갖춘 글로벌인재로서 해외 각지에서 △외교△언론△이공계 분야 등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선배가 이룩한 업적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업적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통해 획기적인 도약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4. 학내엔 △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여러 소수자가 존재합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수자의 권리 주장과 보호를 위한 상설 청원시스템과 권익위원회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선 학내 소수자에 대한 △상담△인식 개선△활동 지원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수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상호 존중과 배려의 동반자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5.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이 대학 존립의 중요 요소가 됐습니다. 우리학교만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글로벌 경쟁력을 활용한 취·창업 프로그램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입생 세미나 개최△영어 모의 면접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잡월드(Job World) 개최△헤리티지 칼리지 설립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학생 중심의 신입생 세미나를 개최하려 합니다. 이 세미나에선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취·창업 프로그램△학교생활 안내△학내외 멘토링 등이 밀도 있게 다뤄질 것입니다. 아울러 영어 모의 면접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학교엔 영어면접 취업지도관이 한 명뿐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우리학교 내 잡월드를 개최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외교·통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준공영제 단과대학인 헤리티지 칼리지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외교부 및 해외 공기업과의 관학 협력으로 취업 기회 확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6. 현 우리학교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 교육엔 양과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의 문제엔 이중전공 제도의 미흡함이 있습니다. 이중전공 집중 현상이 발생하는 전공에 대한 사전 수요 예측으로 학생의 수요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형 수강신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질의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중복학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중복학과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수립한 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전공 융합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 합니다. 이외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양방향 소통 기반의 외국어 교수법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혁신원 산하 위원회 구성으로 우리학교만의 교수학습법을 개발한다면 연수원 및 FLEX센터 등과 연계해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별 질문

1.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부지 및 홍릉지구를 활용한 서울캠퍼스 외연 확장과 문화예술 허브 구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개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본 공약은 이전 예정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부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본관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현재 서울캠퍼스는 25,000평에 불과해 교지 면적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간 부족이란 문제점은 점진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미 문화체육부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관계자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며 향후 공동문화교육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세계문화예술경영 및 미네르바 인문교양대학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한류 연구센터의 토양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학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대문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 HUFS 복지협의회를 신설해 교직원과 학생 복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단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우리학교 복지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복지협의회의 역할 및 운영 계획이 궁금합니다.

몇 년 간 지속된 재정위기로 현재 우리학교는 △교수 연구비 지원 미흡△교수 및 직원의 임금동결△학생 장학금 급감 등 심각한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우리학교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학내의 모든 구성원입니다. 이에 이들에 대한 재정 분배 문제를 투자가 아닌 비용의 관점으로 바라봤던 기존의 시각을 재고하겠습니다. 우리학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판단되면 주체를 불문하고 가능한 재원을 아낌없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재정의 불균등 분배 문제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계획입니다. HUFS복지위원회를 신설해 학내 구성원의 복지를 연동하며 혁신하는 논의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공통질문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대학의 잠재력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우보천리(牛步千里)하는 리더십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영역에서 리더가 되도록 견인해야 합니다. 내부조직의 역량을 촘촘히 엮어내기 위해선 리더를 연결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원을 리더로 만들어주는 리더의 리더란 의미에서 총장은 슈퍼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학엔 그동안 담론에 그친 채 실행되지 못한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추진력과 실행력 또한 필요합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제개편과 교육 혁신△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제도화된 수익 재원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학내 구성원의 발전을 도모할 학제개편과 교육 혁신입니다. 중복학과 통합으로 학과간 정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4대 원칙인 △정원이동의 장기적 설계△특수외국어학과 생태계 보장△학과 통합의 부작용 최소화△합의에 기초한 점진적 통합에 중심을 맞춰 우리학교 양캠퍼스 특성화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우리학교의 다면적 확장을 위한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입니다. 이는 에듀테크(EduTech)를 기반으로 대학 공간을 확대해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을 뜻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해외 캠퍼스를 개발할 수 있어 글로벌 진출이 용이해집니다.

셋째는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화된 수익 재원 확보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환경변화는 우리학교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가치를 사업화할 기회가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이번 해 다국어 데이터사업을 통해 42.5억 원의 신규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이에 기존의 사업구조를 개편해 '외대형 대학기업(HUFS University Enterprise)' 을 설립하고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만들겠습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제가 임기 중 추진하려는 인재상은 △글로벌 무대 활동가△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2개분야 전문가입니다. 혁신적인 마인드로 도전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를 뜻합니다. 이것이 개교 이래 우리학교가 지켜온 고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학제개편과 교육 혁신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중전공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새로운 맞춤형 이중전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 특성화 사업인△국제지역연구원 신설△외국어공학원 신설△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체계화△HUFS-국제문화봉사단 구축을 통해 우리학교다운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4. 학내엔 △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여러 소수자가 존재합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지원 및 관리△생활 상담△졸업 후 지원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현재 우리학교엔 여성과 장애인의 인권 관련 부서가 있지만 인식 개선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체계화할 생각입니다.

5.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이 대학 존립의 중요 요소가 됐습니다. 우리학교만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단기적으론 입학처의 입시전략을 강화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4대 특성화 사업인 △국제지역연구원 신설△외국어공학원 신설△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체계화△HUFS-국제문화봉사단 구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글로벌 연구거점이 될 국제지역연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공학원을 신설하고 다국어 데이터 구축으로 우리학교의 미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론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의 체계화를 통한 외국어 교육에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HUFS-국제문화봉사단' 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문화 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학생 프로그램을 시행하려 합니다.

6. 현 우리학교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의 이중전공 제도가 미흡하단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간 우리학교의 이중전공 체제는 전담 교수의 부족과 미흡한 운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전공교육원 설립을 기획하려 합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이중전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조정△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설계△이중전공 전담 인력 지원 등 학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과 정원의 1.5배로 제한돼 있는 이중전공 수강 가능 인원을 2배수나 3배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후보별 질문

1. 우리학교의 국제화를 위해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의 주목적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학교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입니다. 양캠퍼스 간 거리를 좁히고 해외 주요 도시에 거점 캠퍼스를 구축해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익 재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선 플랫폼과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으론 네이버의 '제페토(ZEPETO)' 와 SK 텔레콤의 '이프랜드(ifland)' 등이 존재합니다. 우리학교는 대기업이 다가올 가치를 지닌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설립 당시 다양한 기업이 투자한 이유도 우리학교의 높은 가치 때문입니다. 이는 수익이 담보된 한국어문화교육원의 한국어 사업에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매해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의 예산 중 3억 원을 콘텐츠 개발에 투자하려 합니다.

2. 민주적인 우리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 투명화 및 수익사업의 총장 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이 궁금합니다.

재정압박의 근본적인 원인은 △계속되는 수익사업의 감소△등록금 동결△물가 상승에 있습니다.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충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학교의 예산 규모는 평균 2,200억 원에 머물며 △관리운영비 250억 원△연구·학생경비 700억 원△인건비 1,100억 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재원은 고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감소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정 건전성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존 교육사업의 확장과 새로운 교육 시장 발굴△데이터 구축사업으로의 진출△대학원 등록금 수입 증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하형 기자 03hahyung@hufs.ac.kr

우리학교를 이끌 제12대 총장, 그 주인공은?

◆공통질문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모든 공직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질은 △소통능력△책임감△혜안입니다. 교육 기관의 수장이 되기 위해선 교육에 대한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대학은 지성인을 양성하는 공간으로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소통능력이 절실히 요구되죠. 교육자의 대표인 총장이 사회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혜안도 필요합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통의△학제 개편△교육 혁신입니다. 첫 번째 공약인 통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거버넌스에 우리학교의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을 포함해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강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약인 학제 개편은 단계적 유사학과 정리와 새로운 학과 설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간의 유사학과를 정리할 시 글로벌캠퍼스의 학과가 폐지될 우려가 크죠. 글로벌캠퍼스의 성장 동력 문제를 고려해 외국어와 이공계를 어우른 새로운 학과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설립된 학과는 학생에게 제 2전공으로 주목받을 수 있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코딩과 빅데이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인 교육 혁신을 통해 △교실△국경△교과를 넘나들며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슬로건으로 내세운 '통하는 대학' 을 바탕으로 한 △통의△통섭△통용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지성인이 존재하는 우리학교가 빠르게 위기를 대처하지 못한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내 구성원의 역량을 충분히 끌어내지 못해 못했기 때문이죠. 통의를 대학 운영 철학으로 삼아 융합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통섭을 통해 전공과 전공 사이, 더 나아가 캠퍼스와 캠퍼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싶습니다. 본인의 전공에만 그치지 않고 칸막이를 낮추면 교육과 연구에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20년 뒤에도 우리학교가 사회에서 존재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대학 평가 지표 중 학생 만족도에 관한 지표는 높지 않습니다. 통용을 통해 학생의 만족도를 높여 △입학하고 싶은 학교△머무르고 싶은 학교△졸업 후 고마움을 갖게 되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4. 학내엔 △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여러 소수자가 존재합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수자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 모두와 관련된 △성평등센터 체계 변화△교내 시설 확충△학생징계 규정 수정을 통해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성평등센터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숨기는 모습을 여럿 봤습니다. 성평등센터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신뢰를 주고 싶습니다.

글로벌캠퍼스는 면적이 넓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계단이 많은 공학관과 어문학관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지 않죠. 장애인을 위해 좀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이 대학 존립의 중요 요소가 됐습니다. 우리학교만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제 개편을 통해 다양한 학과가 존재하는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학교의 다양한 외국어 학과는 우리나라가 국제화를 목표로 했던 시기에 굉장한 강점이자 매력이었죠. 하지만 자동 통 · 번역 프로그램과 다양한 언어 교육 통로의 발전으로 특수외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는 더 이상의 매력을 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학교의 특정 외국어 계열 학과는 시장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하죠. 취업 면에서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입시 미달의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입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제 개편을 통해 선제 대응할 예정입니다.

6. 현 우리학교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 교육의 문제는 크게 교육 방식과 비교과 활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 방식 면에선 지나친 외국어 교육을 탈피해야 하죠. 이를 위해선 외국어 교육 비율을 낮추고 각 나라의 다양한 학문을 다루는 학과 간 공통 과목 연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전공의 영역을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인정하고 교과목에 따라 학생 주도 수업 방식인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과 캡스톤 디자인 강좌와 같은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취업 시장에선 성적 증명서가 아닌 종합적 활동을 토대로 만든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계기로 창의력을 함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취 · 창업에 도움이 될 공모전과 전문가 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후보별 질문

1. 입시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일부 계열은 입시 모집 광역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과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전면적 입시 모집단위 광역화가 아닌 일부 학과 광역화가 필요합니다. 모집단위 광역화를 통해 교육면에서 여러 학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부 외국어 학과에선 공통과목과 연계과목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러한 과목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단과대도 존재합니다. 이에 모든 학과가 아닌 일부 학과에 한정된 광역화를 충분히 검토해봐야 합니다.

2. 우리학교 내 평생교육체제 도입 및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합류 참여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공약의 주배경과 실천계획이 궁금합니다.

대학 기반의 붕괴와 직업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때문입니다. 학력인구가 줄어 정원이 감축되면 대학 기반이 붕괴되죠. 이에 대학에선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를 학생 군으로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외국어를 제외하면 타 학교에 비해 학문적인 스펙트럼이 넓지 않아 유학생에게 매력적인 학교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 직업 라이프 사이클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에 따르면 기성세대는 1인당 3개의 직업을 갖지만 20대는 평생 1인당 8개의 직업을 가져야합니다. 원활하게 직업을 갖기 위해선 평생교육체제 사업을 통한 재교육기관이 필요하죠. 학생들은 성인 학습자가 같은 학사 학위를 받는 것에 불만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성인 학습자와 △강의실△수업내용△학수번호가 모두 달라 별도의 학과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죠. 최대한 빨리 경험을 쌓아 효율적인 체제를 개발해 놔야 합니다.

박채빈 기자 02chaebin@hufs.ac.kr

◆공통질문

1. 총장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비전△추진력△소통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은 좋은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추진력은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런 추진력을 바탕으로 학내 구성원과 소통하며 공감을 끌어내고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총장은 학내 구성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비전△추진력△소통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핵심 공약 3가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융복합 혁신 교육 과정△발전기금 1천억 원 모금△민주적 행정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공약은 △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송도캠퍼스에 국가별로 특화된 융복합 혁신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과 지역학△언어와 공학△언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통합 과정 등을 계획 중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과 지역학 통합 과정에선 △데이터 과학△사회과학△지역학을 통합해 교육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발전기금 1천억 원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1+3과 수익형 듀얼 디그리(Dual Degree) 등의 다양한 수익 사업을 통해 재원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글로벌 1+3은 중국 및 주변 국가의 해외 학습자를 대상으로 우리학교에서 1년, 해외 대학에서 3년을 공부하면 해외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익형 듀얼 디그리는 해외 대학에서 2~3년, 우리학교에서 1~2년을 공부하면 두 개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학교는 모든 결정이 총장에 집중된 편이라 업무 효율성과 소통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장의 권한 확대 및 전사적 관리 위원회(ERP)를 도입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총장이 된다면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학교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학생 성공' 입니다. 대학은 학문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밑바탕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총장이 된다면 고유 역량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로 학생이 성공하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혁신을 위한 도전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도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4. 학내엔 △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여러 소수자가 존재합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마땅히 이뤄져야 할 계획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다양성 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양성 위원회에선 학내 구성원의 다양성 현황을 파악할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를 통해 우리학교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제안하는 거죠. 이 같은 정책에 기초해 체계적인 소수자 인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5.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이 대학 존립의 중요 요소가 됐습니다. 우리학교만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입시 시장을 해외로 확장해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학교에 오면 성공할 수 있단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전문가 플랫폼 신설이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학교에서 학사를 수료하고 세계적인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학교가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 우수 학생을 쉽게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현 우리학교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학교 교육의 전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학교의 입학 정원 비율은 △외국어 계열이 62%△외국어를 제외한 문과 계열이 22%△이과 계열이 16%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어 계열의 경우 전공만으로 직업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의 직무 적합성을 키워줄 수 있는 데이터 관련 기술과 우리학교가 가진 △사회과학△외국어△외국학을 융합해야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혁신을 진행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캠퍼스에선 인문 · 사회과학 중심의 다국어 데이터 기반 외국학을 특화해 브랜딩할 계획입니다. 언어와 공학과 같은 융복합 학과는 재설계 및 확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캠퍼스에선 △문화 · 예술△스포츠△융합 인재△이공계 대학을 글로벌화해 특화점을 부각하려고 합니다. 송도캠퍼스는 바이오 산업단지란 송도의 장점을 살려 데이터 과학과 생명공학을 통합하고 금융지역학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후보별 질문

1. 우리학교 구성원의 만족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약을 제시했는데 현 우리학교 복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공약으로 내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이 궁금합니다.

학생 맞춤형 대학 컨설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학내 구성원의 복지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수△직원△학생 모두 저조한 상황입니다.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공부하고 취업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개인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훕스어빌리티(HufsAbility)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대학 컨설턴트는 학생을 찾아가는 상담 방식입니다. 이런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성공할 수 있는 대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겠단 공약을 제시했는데 우리학교 캠퍼스별 특화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강화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외대앞역부터 우리학교까지 1만 2천 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동대문구 및 서울시와 협력해 국제 문화 거리를 조성하려 합니다. 기업과 협력한 멘토 ·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용인에 위치한 글로벌캠퍼스 주변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통 · 번역 봉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초등학교에 가서 코딩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송도캠퍼스의 경우엔 신도시란 특징을 살려 다양한 외국어 교육이나 사회봉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모든 캠퍼스의 특화점을 살린 다양한 협력 형태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나윤 기자 02imyun@hufs.ac.kr